



이것은 멜빈목사님의 책과, 그 책을 가지고 사역해 온 저의 글을 월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냐 멜빈대학교를 위해서는 영어로 만들고, 한국에서는 한글판을 만듭니다.

2025년 6월

평신도목회LPM과 PACE사역

평신도목회LPM/PACE는 1978년 미국의 멜빈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평신도의 목회적돌봄"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지금까지 **목양사역을 PASTORING**해 왔다.

평신도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지난 수세기 동안 타문화권에서 선교까지 해왔다. 그런데 왜 목양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여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평신도들도 목양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각성시키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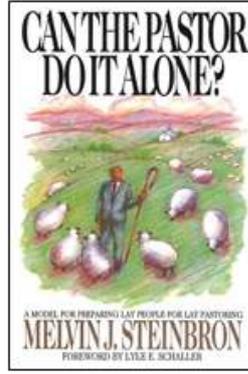
안수받은 목사만이 목회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평신도도 역시 성령에 의해 은사를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 평신도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돌봄의 사역을 진짜 목양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 은사를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구조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목회의 정의와 목양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려한다.

평신도들은 지금도 목양사역을(PASTORING)하고 있다.

칼리지힐 장로교회의 평신도들은 지난 8년동안 평신도목회라고 하는 구조안에서 순수하고 효과적인 목회목양사역을 해 왔다. 다음과 같은 여러 교회에서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언급하는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미조리주 캔사스 시의 제2 장로교회, 미시간 주의 그랜드 레피즈 시의 웨스터민스트 장로교회, 테네시 주의 낙스빌에 있는 시다 스프링 장로교회, 오하이오주 벨록의 베델 루터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제일 장로교회,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채플 락 크리스천 교회, 워싱턴 DC의 트루로 회중교회 등등이다. 수년동안 우리는 이 목양사역을 해왔고 다른 여러교회와 이 사역의 경험들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 목양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는 목사나 평신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였다.

평신도들은 목양사역을(PASTORING)하고 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목회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때에,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동료 중의 하나가 평신도를 목회자로 동일시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해왔다.



© copyright 1987



© copyright 2001

그는 평신도에 대해 목회를 돕는 자나 목회의 자원봉사자나 혹은 다른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몰라도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목회자라고 하는 명칭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파송받은 평신도가 목사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목사들과 똑같이 돌보고, 목사들과 똑같이 방문하고, 목사들과 똑같이 목회적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목사들과 똑같은 목양사역을**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목양사역자(lay pastoral caregiver)**이다.

우리는 평신도들도 목사들과 똑같이 목양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신도들의 목양적 은사가 안수받은 많은 목사들의 은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것을 알수 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이 목양사역에 부름을 받으면, 그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칼리지 힐 장로교회의 협동목사인 제리 R. 컬크와 로널드 R. 랜드와 8명의 다른 부교역자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임명된 장로그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평신도를 목양사역로 세우는 훈련센터로 부르신 것을 믿고 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목회(Lay Pastors Ministry)는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외에 두가지 사역이 더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랜드 박사가 개발한 전도임상훈련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게리 R. 스위트 박사가 개발한 역동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 목회사역을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온 수 많은 평신도들과 목사들을 훈련시켰다. 우리는 훈련센터로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누가복음 12 장 48절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주요 말씀으로 채택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주셨다! 그의 은사는 풍성하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신도목회자로 준비시키고 이런 목회방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센터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부터 어떤 제안이나 논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리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교회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



(네트워크 뉴스 읽기)

멜빈박사님께서 세 가지 재구비 자료를 만들었다: 소논문, 다이내마이트 미팅, 그리고 에세이. 소논문은 시작 단계에 적합하다. 즉, 처음 6개월 동안은 재구비 훈련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역의 허니문은 몇 주 안에 끝나거나 몇 달 정도 지나면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한다. 충전과 재구비는 월간 모임에서 다이내마이트 미팅을 사용해야 하며, 집이나 그룹모임에서 에세이를 읽고 서로 토론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신도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일 수 있다. 일단 그것들을 읽었을 때, 나는 다시 마음과 눈을 떴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사역한 미국 네트워크 뉴스를 분기별로 발행한 것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멜빈박사는 주로 사역 분야의 많은 이야기와 그의 경험, 그의 통찰력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역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읽고, 또 읽으면서 사용하고 있다.

(PACE 사역이 오늘의 교회에 적합한가?)

오늘날 우리가 PACE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PACE의 개념을 갖고 실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세계는 어제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내 말은 멜빈박사 30년 전에 PACE 사역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더 많은 PACE 사역이 필요한 이유이지만, 때때로 나는 PACE가 오늘날에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PACE는 돌보는 사역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시간내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려운 것들이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다. 물론,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일부는 그런 것이 긴박하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필요시에 내가 거기에 가 있을 수가 있는가이다. 이것은 첫 번째의 '기도'보다 더 어렵다. 첫 번째는 기도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이동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도는 감정적일 뿐이지만, 내가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가 더 어렵다.

평목의 설립자인 멜빈박사와 그의 팀은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바쁘고 많이 달라져서, 바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시간이 있을 때도 그렇다, 그들은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다. 심지어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접촉한다는 의미의 Contact이고, Available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간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세 가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모범 (Example)이 될 것이다.

(재교육 및 개인적인 지도)

재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행하기 쉽지 않다. 그것은 정말 일반

적인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 PACE사역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동정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자비와 연민과 격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 사역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PACE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재교육 및 개인적인 지도. 나는 정기적인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훈련할 때 멜빈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또한 다른 자료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창의적일 수도 있다. 우선, 13개의 소 논문을 보라. 그것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내가 LPM USA에서 20여 년간 발행한 소식지를 다시 읽었을 때, 나는 그 자료들을 사용했고 그것이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 그것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 그들은 평신도목회자들이다. 둘째,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목자나 사역의 지도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

내가 캐나다에서 CPE 교육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룹 다이내믹과 개인적인 지도감독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것은 내 성장에 좋았다. 둘 다 같은 가치가 있으므로 LPM/PACE 사역에서도 그룹 훈련과 개별 감독, 즉 현장에서 PACE를 하고, 종종 함께 정기적으로 재훈련하고 사역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평신도목회/LPM 과 PACE)

평신도목회LPM은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큰 시각이다. 간단한 사역내용은 PACE라고 한다. 우리는 때때로 SIBKIS라고 말한다; See it big, Keep it simple. 크게 보되 단순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LPM은 모든 것을 말하지만, PACE는 평신도목회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돌보는 사역 설명서이다.

PACE와 LPM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PACE는 일대일 돌봄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LPM은 전체 돌봄이다. 그 이유는 PACE는 일대일 관



계이기에 교회 전체의 회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많은 일

대일 관계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 더 큰 의미와 비전이 있다. 정의만 보더라도 PACE는 관계가 제한적이고, LPM은 전체 문화와 방향이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PACE는 평신도의 과제이고, LPM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멜빈의 첫 번째 책은 PACE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책은 LPM을 위한 것이다. 두 권의 책은 다르고, 각각의 책은 완벽한 그림이지만, 우리가 함께 보면 벽에 걸린 두 장의 그림처럼 그 두 권의 책이 좋으며 시너지를 낸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를 주고, 구조적인 에너지와 문화, 큰 비전이 만들어진다.

일대일 관계는 PACE이다. 그것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고 싶다면 LPM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LPM 시스템이 운용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사역으로 150개가 넘는 교회를 도왔다. 보시다시피 이 사역은 평신도와 목사의 관계이다. 물론 전체 회중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면에서 그들 모두가 이 사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맛보고, 감사해 한다.

(그들의 사역을 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큰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이 사역을 맡고 있는데, 다른 사역을 하지 않고 이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수준도 있지만 가장 뒷사람은 담임목사이다. 그들은 주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채택하고 교회에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PACE를 매우 잘 알아야 하고(돌봄 자체), 자신의 교회에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LPM (종합적인)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끌지도 못한다. 어려운 점은 그들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오래된 습관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된 습관? 일종의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지만, 이 사역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이 사역은 그들(평신도)이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들은 이것이 본래 본인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의 목회를 돕기 위해 나누어준다는 개념은 평신도가 일하기에 적합한 개념은 아니다.

이것은 평신도들의 사역이고 이제는 평신도들이 소명 받고, 은사가 있고,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개념을 믿어야 하고 또한 평신도들을 믿어야 한다. 목회자가 믿지 않으면 평신도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을 움직여서 돕고,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사역을 성공하게 하려면 LPM과 PACE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역의 대부분 실패가 이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충분한 지식과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역이 무엇인지, 이 사역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사역으로 15년 동안 교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물론 나는 주로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비 평목들을 훈련하곤 했다. LPMI USA도 같은 스타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들은 우리 연구소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평목에 대한 호칭도 많다. 원래 이름은 Lay pastor 평신도목회자이지만 상황과 담임목사의 신학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그래서 멜빈박사는 그의 13개의 소논문 중 하나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부르든지"에서 대해 썼다. 거기서 그는 미국의 지역 교회에 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들이 다른 이름을 붙이더라도, "장미는 같은 향기를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LPM의 큰 교회 중 하나는 앨라배마주 몽고메

리에 있는 Frazer Memorial Church이다. 그들은 수년 전에 이 사역을 채택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평신도목회자(lay pastor)라고 부르지 않고 평신도사역자(lay minister)라고 부른다. 물론 그 두 이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다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래의 이름과 약간 다르게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다른 교회들이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고 있다. 물론 PACE의 정확한 의미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교회들에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교회는 이미 이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조심해야 한다. 물론 그들을 평신도목회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교회가 수년 전에 이 PACE 사역을 채택했고, 교회에 PACE 훈련원을 개설해서 1,000명이 넘는 평신도목회자를 배출했다. 담임목사는 이런 호칭 문제로 수년간 사모님과 다투고 있었다. 담임목사는 끊임없이 그들을 '평신도목회자'라고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많은 교인이 이 이름이 평신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모님은 이 이름에 대해 항상 불편해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모님은 남편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담임목사는 그들을 "평신도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멜빈이 말했듯이, 호칭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멜빈의 이중 사역)

멜빈의 평신도사역은 이중 사역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평신도목회의 개념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평신도목회의 구체적인(PACE) 내용이다. 그것은 개념과 실천의 일치로 간주된다. 즉, LPM과 PACE이다. 즉 크게 보되 단순하게 하라. 평신도사역 LPM은 큰 그림이고, PACE는 사역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LPM은 숲으로, PACE는 나무로 볼 수도 있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겠다. 멜빈의 평신도목회 LPM은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목회(LPM)를 한다"라고 하면 멜빈의 평신도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물으면 PACE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평신도목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성공할 수 있다. LPM은 [평신도 사역의 개념 및 전체 교회]와 관련이 있다. PACE는 [사역자, 돌봄]과 관련이 있다. 한 마디로 평신도사역은 거시적인 관점이고, 목회적돌봄은 미시적인 관점이다.

LPM은 하나의 브랜드로 교회 전체의 개념으로서 신학적, 성경적 개념,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평신도도 사역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렇게 하도록 불러왔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종교개혁이 여기에 들어맞는다. 목회자나 평신도는 모든 사역 안에서든 같은 존재라는 개념인데, 멜빈의 두 번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PACE는 실제 사역의 내용이며, 위의 개념이 확립된 상태에서 구현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즉, 개념과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PACE는 평신도목회자들이 실천하는 내용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들의 몫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평신도의 몫이 될 것이고, 이른바 사역이 넘겨지는 것이다. 유모에게 아기를 물려주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는 조금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 내가 키우고 돌본 아기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쉽지 않을 것이다.

(평신도목회의 양면)

중국 철학에서, Yin-Yang은 겉보기에 반대되거나 반대되는 힘이 실제로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자연계에서 상호 의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것과 상호 연관되면서 서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사역에 적용시켜본다. 평신도목회는 두 성경에서 따 왔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사역)과 요한 21장 15-17절(돌봄). 대부분의 신학교는 평신도사역과 목회적돌봄에 대한 수업과 커리큘럼을 따로 개설했다. 신학교들은 카운슬링과 목회적돌봄을 과목을 따로 개설하기도 하지만, 멜빈 박사는 이러한 다른 두가지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바로 평신도사역과 목회적돌봄이다.

그래서 LPMI USA는 처음에 평신도의 목회적 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평신도목회로 바꿨다. 처음에는 사역, 즉 평신도목회에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평신도사역자라고 붙였다고 본다.

어쨌든 멜빈은 음/양의 모순을 합해보려고 노력했다. 그게 가능한가? 그 두 주제는 그 자체로서 매우 독립적이지만, 그것들이 함께 모이면, 그들은 시너지를 낸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리가 평신도사역만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개념을 파악할 수 없고,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돌봄을 갖다 붙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 교회는 10년 동안 평신도사역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열린 LPM/PACE 전국 대회 통해서 이해가 분명히 되었다. 일단 그들이 평신도사역과 목회적돌봄을 결합하면, 그들은 목회의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된다. 그것은 대회의 성공적인 결과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때때로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평신도 목회)

나는 LPM 코리아와 이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LPM Korea. 우리는 1999년 7월에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시작 전 2~3년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나는 PACE를 가지고 몇 교회에서 훈련시켰고, 평신도목회자들 중에 몇 명이 나와 함께 연구소를 시작했다. 나는 우리 멤버들에게 세 가지 단계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LPM 코리아의 "스텝" 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3~4명의 평신도가 와서 함께 시작했는데, 사실 그들은 LPM 코리아의 창립 멤버이다. 나는 그들의 교회에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우리의 스태프 되었다. 곧 그들은 이해했고, 그들은 이 사역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역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머물렀다. 정말 장기간에 걸쳐 함께 사역했다.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만나 이 사역과 비전, 지역 교회를 위한 실천 전략과 전국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한 스태프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그는 기독교 신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실 그때 그는 이 사역에 대해 나에게 인터뷰하러 왔고, 우리는 사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마침내 그는 우리의 스태프 되었다. 그를 통해 나는 2년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신문에 칼럼을 쓸 수 있었고, 물론 내 사진도 넣어서 거의 100번의 칼럼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홍보할 수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제가 번역한 멜빈의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라는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출판할 돈이 없었지만,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순조롭게 출판이 됐다





지난 주 월요일 채플은 개학 후 처음 맞는 시간이라 내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 학기의 첫 시간이라 이번 학기의 학생들께 방향제시 겸 나의 전공분야인 평신도목회를 주제로 설교하였다.

성경본문은 에베소서 4:11~12절이었다. 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개역 한글).

우선 여기 한글에서 12절을 보면 교인들의 할 일은 "봉사"라는 데에 뜻을 박아 놓아서, 교회에 와서는 국수나 끓이고 청소나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지난 100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김상복목사님의 말씀이셨다(2000.6월.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개최된 "평신도목회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된 주요 치명적인 요인은 한글 성경 번역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 The work of SERVICE; 그리고 The work of MINISTRY. 어찌 됐든 한글성경은 초기 선교사님에 의해 번역

평신도는 봉사만?

되었기에 어떤 영어 성경에서 따 왔는지를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The work of service라는 영문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봉사의 일"로 우리 한국교회에 100여년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런 오류가 바로 고쳐져야 한다는 게 현재 성경학자들과 목회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에서 4, 5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평신도사역자"라는 말이 번지기 시작했다. 목회자는 "구비시키는 자/Equipper"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평신도들 역시 "사역자"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12절의 주요 요지이다.

엠편 4:11~12절을 다시 보면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5가지 직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평신도를 훈련/구비시켜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평신도들) 주어진 사역/ministry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리지널 성경/희랍어의 근본 의미이다.

이것을 재발견하고 강조한 학자들이 제임스케네디/코랄리지 장로교; 짐갈로우/Ph.D from Drew; 그레그옥덴/Fuller 교수; 폴스티븐스교수/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한국에선 김상복목사님이시다.

Dr. Melvin 목사님은 이 개념을 Calling으로 연결해서 강조하셨다. 평신도도 목회자들과 같이 100퍼센트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지 않은 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 책임이고, 신학교의 문제는 교수들의 책임이다. 안수받는 목회자 양성에 급급한 신학교들은 목회자 위주로 커리를 만들고, 또 훌륭한 목회자 배출에 치중하기에 평신도와의 관계, 즉 how to equip laypeople to do their work에는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다.

여기 케냐의 교회들에서도 목회자만 100퍼센트 Calling 받았다는 인식이 교회 안팎에 편만 하니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대학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미래의 케냐교회는 현재의 신학생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



Melvin University (with alumnus) Kenya Africa since 2021



PACE Int'l Seminary (with alumnus) Nagaland India since 2015



Melvin University
P.O. Box 183
Zip Code 40222-Oyugis
Homa Bay County
Kenya, Africa
Tel: +254-113-760477
www.melvinuniv.org



PACE International Seminary
Sangtamtila Village
Rangapahar crossing
Dimapur-797112
Nagaland, India
Tel: +91-70056-02847
www.pisnagaland.org

